

말의 고장답게 조랑말 이용해 도정했던 농구

제주 애월읍 하가.신엄리 말방아 2기 국가 중요 민속자료 지정

데스크승인 2014.02.27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예전에 방앗간이 없던 시절 선조들이 곡물을 도정하는 데 사용했던 농구가 바로 방아다. 납작한 돌이 서로 물린 틈 사이에 곡식을 넣고 돌려 곡물의 껍질을 벗기고 갈아내는 원리다.

제주가 말의 고장인 만큼 도민들은 방아에도 말을 활용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말방아다. 다른 이름이 물방아나 물방애, 연자방아, 연자매, 연자마 등인 말방아는 조랑말의 힘을 빌려 방아를 돌렸다. 아랫돌 위에 놓인 윗돌이 아랫돌 중앙에 꽂힌 나무의 축을 따라 회전하며 곡식을 도정하는 방식이다.

물방아는 눈비를 피해 오랫동안 보존하며 사용하기 위해 초가의 내부에 설치됐다. 이 초가는 '물고렛집'이나 '말방이집', '물방애집', '말방이왕'이라고 불렸다.

말방아는 1960년대까지 도내 마을마다 많게는 10여 기씩 설치돼 곡식을 도정하는 데 이용됐지만 1970년대 들면서 산업화·기계화의 산물인 정미소에 밀려나면서 속속 자취를 감췄다.

현재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와 신엄리의 말방아 2기가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채 보존되고 있다. 하가리 잣동네의 말방아와 신엄리 당거리동네의 말방아는 '제주 애월 말방아'란 이름으로 1975년 10월 국가 중요 민속자료 제32-1호, 제32-2호로 각각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하가리 잣동네 말방아는 300여 년 전 제작돼 1950년대까지 사용됐다. 신엄리 당거리동네 말방아의 경우 제작 시기는 불명확하고 1975년까지 곡식을 찡고 뺨는 데 이용됐다. 두 말방아의 아랫돌 지름은 2m 내외고 윗돌의 지름은 약 1m로, 아랫돌의 폭이 두 배 가량 크다.

특히 말방아는 옛 제주공동체를 지탱하던 수눌음 정신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마을 주민들은 인근 돌산이나 계곡에서 말방아의 윗돌과 아랫돌을 잘라 마을로 굴러온 후 몰방애집을 지어 설치한 후 곡식을 도정하는 작업까지 모든 과정에 수눌음 정신을 발휘했다.

주민들은 계(집)를 조직해 말방아를 제작·운영했는데, 관혼상제를 돌보는 상부상조 조항까지 규정에 담겨있었다. 또 주민들은 돌을 잘라 옮기는 과정에서 고단함을 잊고 격려하기 위해 노동요를 불렀는데, 바로 '방앗돌 굴리는 노래'(안덕면 덕수리·제주도 무형문화재 제9호)다.

김순이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과거 마을별로 보통 10가구나 그 이상이 모여 말방아를 공동으로 만들어 사용했다"며 "수눌음 정신을 통한 소통으로 돌을 깨다 방아를 제작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 공평한 이익을 누리도록 운영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